농림축산식품부	**보도자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8월 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업통상과 과 장 김소형(044-201-2051), 사무관 박승민(2054) / 제공일 : 8월 5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「코로나19 이후 농업통상 전망」 화상토론회 개최(8.4)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농림축산식품부는 8.4(화) 웨비나(webinar, 화상토론회)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이후 농업통상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.

◈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통상 및 농업협상 동향을 공유했으며, 단기간 내 WTO 농업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❑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8.4.(화) 통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**'포스트코로나19 농업통상 전망'** 웨비나(webinar, 화상토론회)를 개최하였다.

❑ 이번 웨비나에서는 정부, 학계 및 제네바(WTO 본부 소재) 주재 농무관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모여 코로나19 이후 다자무역 체제 변화를 전망하고 농업통상 부문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.

❑ 참석자들은 미·중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 다자무역 체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.

○ 미·중 갈등은 연초 1단계 합의타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, 코로나19로 인하여 합의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,

○ 미국,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제조업의 본국 회귀(reshoring)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,

○ 다만,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에 다수 국가가 공감하고 있으므로, WTO 내 디지털 통상 부문의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❏ 또한, 참석자들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달리 선진국·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크고, 전 회원국 합의가 필요한 현 협상방식을 고려할 때, 당분간 WTO 협상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보조금, 전자상거래 분야 및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공급체인, 수출제한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, 협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.

○ 아울러 WTO 내에서 국내조치의 투명성과 통보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으므로,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통보의무 이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.

❏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가 국제통상 전반의 동향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,

○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농업통상 부문의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.

붙임 **「포스트코로나19 농업통상 전망 웨비나(webinar)」 개요**

□ 개최배경

○ 코로나19 이후 **WTO 체제 변화가 가속화**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**국제통상 동향**을 살펴보고 **농업통상 부문 대응방안 모색** 필요

□ 참석자

○ (농식품부) 국제협력국장, 농업통상과장, WTO 담당사무관 등

○ (주제네바대표부) 정현출 공사참사관

○ (전문가)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혜민 겸임교수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현 연구위원

□ 개최일정

○ **일시/장소**: 8.4(화) 16-18시, 농식품부 342-3호 회의실(영상회의)

○ **상세일정**

시간	발표주제	발표자
16:00-16:10	**모두발언**	국제협력국장
16:10-16:40	**최근 주요 국제통상 관련 동향**	이혜민 교수
16:40-17:00	**WTO 농업통상 동향 및 전망 I**	정현출 공사참사관
17:00-17:20	**WTO 농업통상 동향 및 전망 II**	김상현 연구위원
17:20-17:50	**토의 및 질의응답**	참석자 전원
17:50-18:00	**마무리발언**	국제협력국장

참고 관련 사진


이 상 만 국장
이상만(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)
이혜민(서울대)
김소형(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)
김상현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정현출(주제네바대표부)
박승민(농식품부 농업통상과)